

목양칼럼

어머니는 다 그러신가 봅니다

어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권사님.
 며칠 전 아흔한 번째 생신을 지내셨습니다.
 어머님의 상황이 안 좋아지신다는 소식을 듣고
 유럽에 사시는 따님이 서둘러 뉴욕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 일 년에 두 차례 찾아 볼 때 걸리던 시간의 몇 배를 보내고야
 뉴욕에 도착하여 그리운, 그리고 아프신 어머니를 뵈게 되었습니다.

따님이 미국에 체류하는 시간을 넉넉히 갖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날 식사를 드시지 못하여 점점 쇠약해지시던 권사님은
 자신의 건강보다 더 걱정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따님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으시길 바라신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품에 어서 안기고 딸은 어려움 없이
 자기가 사는 곳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길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라” 는 위대한 유언을 따님에게 남기신 권사님.
 하나님 품에 안기시던 날 새벽,
 따님에게 가슴이 답답하시다는 말씀을 하시고
 따님의 손을 잡은 채 따님의 기도 속에 이 땅을 떠나신 권사님은
 끝까지 따님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다 그러신가 봅니다.
 살아생전 자신보다 애절히 자녀를 돌보시느라
 그 몸이 약하고 약해지신 어머니들은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자녀 걱정으신가 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718)886-5555 http://www.kapcq.org

- 담임목사** 김성국
- 부목사** 김도현/OPEM(347)450-7736 첸위지/CM(347)965-0343 차평화/교육부(703)819-8785 손요한/행정,양육(646)789-1118
- 전도목사** 이신은(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V.Son/RM(917)940-0596
- 전도사** 이양미/1교구(516)717-8720 함미희/2교구(917)359-2857 고부영/3교구(917)423-5298 이소영/새가족(347)610-5399
- 최진식/훈련(646)887-7419 허장길/청년선교(516)410-4121
- 교육전도사** 강지영/킹스아카데미, 특별활동부(718)801-2339 허 준/중국교포부(행정)(718)640-7905
- 이명옥/영아부(646)705-1005 김정민/유아부(914)648-9996 전진영/유치부(267)476-2042 팽정은/유년부(347)804-5366
- 허남준(인턴)(516)477-2329 이오스틴/초등부(631)617-1339 김성일/중등부(347)906-2003
- 허노아(중국어청년부) 황웨이(인턴), 린진진(인턴)/중국어교육부 협력전도사 윤원상(201)681-7899 계획자(646)641-8944
- 정진규/관리(646)651-7255 홍원숙/비서실(201)759-0820 오재혁(646)662-9015
- 직원**
-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지휘 / 강혜영
- 반주 / 송소영 임세현 반주 / 김정윤 반주 / 최미희 반주 / 이송은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일예배 (1,3부)

주후 2020년 10월 18일
 제 46-42호

- 1부 / 오전 8:00 김성국 목사
-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 4부 / 오후 2:00 김성국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27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이인철 장로 3부 / 이무근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예레미야 31:15-22	사회자
찬양	CHOIR	하늘 향해 가리라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내 창자가 들끓으니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279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585 / 1,3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사회자
* 표는 일어섬			

주후 2020년 10월 18일

주일예배 (2,4부)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김성국 목사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정성호 장로 4부 / 김수산 장로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279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예레미야 31:15-22	사회자
찬양 CHOIR	하늘 향해 가리라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내 창자가 들끓으니	김성국 목사
* 찬송 HYMN	585 / 1,3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사회자

* 표는 일어섬



제4권 왕국의 성립
오후 4:00 유튜브 채널
KAPCQ Media

종교개혁 기념 찬양 예배

개혁주의 5대 강령(The Five Solas)

10/28(수) 오후 8:00

Fall Family Festival

10/31(토) 오후 7:00

(유튜브 채널 KAPCQ Education Department)

수요 기도 예배

오후 8:00 (10/21/20) 사회: 김정민 전도사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94	다같이
기도		이성은 권사
광고		사회자
성경봉독		사회자
	누가복음 5:33-39	
말씀		김정민 전도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찬송	292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교회소식

10월 말씀의 달 -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과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행사 및 모임

10/24(토) 건축 바자회 10/25(주) | 11/1(주) 학습, 세례교육

10/28(수) 종교개혁 기념 찬양 예배 | 선교회 회장단 기도모임 10/31(토) Fall Family Festival

알림

- QBC 안내** 1) 수업 내용: 가스펠 프로젝트 제4권 1과 2) 강사: 손요한 목사
3) 시간: 오후 4:00 (유튜브 채널 KAPCQ Media)
- 종교개혁 기념 찬양 예배 안내** 10/28(수) 오후 8:00 축복이 흐르는 수요 예배는 종교개혁 기념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개혁주의 5대 강령(The Five Solas)으로 꾸며진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Fall Family Festival 안내** 교육부 아이들을 위한 Fall Family Festival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일시: 10/31(토) 오후 7:00 (유튜브 채널 KAPCQ Education Department)
2) 신청: 홈페이지 3) 선물 픽업: Drive Thru 오전 10:00 ~ 오후 1:00
4) 문의: 각 부서 담당 교역자
-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 교육 안내** 1) 기간: 10/25(주) | 11/1(주)
2) 장소: 3부 예배 후(오후 1:30) 212호(학습), 208호(세례) | 유아세례 11/1(주) 오후 1:30 (Zoom)
- 건축 바자회 안내** 성전 건축을 위한 바자회를 각 선교회와 다민족 주관으로 합니다.
지하 친교실과 주차장에서 픽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10/24(토) 2) 시간: 오전 6:40 ~ 12:00
3) 주문: 홈페이지, 카톡 채널, 교구장 혹은 회장
- 교회 출입 안전수칙 안내** 교회 안전 강화를 위하여 아래 몇 가지 수칙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 수칙과 출입 기록부를 철저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예배와 특별한 용무 외에 교회 출입을 최대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배 이외 모임은 최대 25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기념 장학기금** 정해성 집사, 정주영 권사, 이재남 집사

새가족

우경호, (박)아영(갯즈월선교회) 우도규(유아부) (3F4)

교우 소식

결혼 차평화 목사(2Y2)와 김은지 양(1Y2)의 결혼식이 10/24(토) 오후 6:00에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송순애 권사(1FM5)의 딸 김유진 양과 정재원 군이 10월 10일 결혼하였습니다.
소천 방숙란 권사(1F3)께서 10월 15일 소천 받으시어 은혜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금식 기도

주 / 강성근 강지영 한희건 한철익
월 / 함미희 함용식 오연숙
화 / 팽종익 허강 허영미 김상은 팽정은 이찬미
수 / 이정훈 홍한나 조소영 홍성익 이혜진
목 / 이정훈 조소영 홍성익 홍한나 이혜진
금 / 최은숙 정소연 고유진
토 / 김남경 이정혜 정사용 조성현 조다솔 최진식 최미희

매일 드리는 묵상 시간(QT)

매일성경 (성서유니온) 묵상순서를 따릅니다

2020년 10월 셋째 주

패밀리타임 10월 18일(주) 성경: 스바냐 2장

10/19(월) / 시 29:1-11 / 온 땅 가득한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 / 찬송가 67장

시인은, 온 땅을 다스리며 자기 백성을 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권능 있는 자들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기에, 모든 영적 존재와 천사가 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찬송합니다. 하늘뿐 아니라, 지금 구속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거룩한 옷으로 단장하고 그분의 인자와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자연의 오묘함, 생명의 신비, 존재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묵상하며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10/20(화) / 시 30:1-12 /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 찬송가 70장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인이 주의 성도들 앞에서 주님의 인자와 사랑을 간증합니다. 사랑하기에 잠시 노여워하시지만, 사랑하기에 영원히 은총을 베푸십니다. 절망의 밤이 끝날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기에 어김없이 아침이 오고, 기쁨의 새날을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징계가 고통스러워도 회복될 영광에 비할 수 없습니다. 회복의 아침은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난 기쁨이고, 영원한 주의 은총을 확인한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춤이 되고, 참회의 베옷이 잔치옷으로 바뀝니다. 시인은 애통하는 부르짖음을 찬미의 노래로 바꾸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찾는 이들, 주님께 돌아온 이들은 누구든 이런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21(수) / 시31:1-24 /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 찬송가 292장

대적이 친 그물에 걸려 고통받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모든 이가 그의 곁을 떠나 홀로 남겨진 때에, 그는 주님을 반석과 산성으로 삼고 애타게 기도합니다. 시인의 탄식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의 상황이 역전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노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의인을 회복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더 이상 스올의 밑바닥에서 죽은 자처럼 탄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시인의 당부를 주님을 기다리는 나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둡시다.

10/22(목) / 시 32:1-11 / 회개, 정직한 자들의 고백 / 찬송가 279장

'의인', '마음이 정직한 자'는 흠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겸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지은 죄를 슬퍼하며 고백하는 이에게 한없는 자비를 보이시고 그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러니 죄를 간직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허물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하며 근심하지 말고, 이미 아시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낱알이 아뢰십시오.

10/23(금) / 시 33:1-22 / 찬송, 정직한 자들의 노래 / 찬송가 36장

회개가 정직한 자들의 고백인 것처럼, 찬송도 허물을 용서받은 정직한 이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제 자리에 굳게 세우십니다.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을 연기처럼 소멸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영원히 성취하심으로,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 역사를 정하시니, 온 땅 거민이 경외하고 순종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24(토) / 시 34:1-22 /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 / 찬송가 436장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를 구원하시고 그의 삶을 부족함 없이 채우십니다. 젊은 사자는 제 힘을 자랑하지만, 늘 궁핍하고 주립니다. 그러나 약하고 비천한 자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벌하십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또한 불의한 세상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런 의인을 향하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며, 그분의 손은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10/25(주) / 시 35:1-18 / 악인은 망하기를! / 찬송가 357장

시편에 등장하는 첫 '저주'입니다. 시인은 거짓으로 모략하고 선의를 악으로 갚는 대적들을 주께서 심판하시고, 자신의 위태로운 생명을 구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시인은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며, 위태로운 생명을 구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세상에는 누군가의 불행을 자신의 득으로 여기고, 더 깊은 수렁에 빠트리려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그들처럼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이 인생의 도리라면, 악을 선으로 응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시인처럼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낱알이 고하고, 하나님의 공평한 판단을 기다립시다.